

[16~21] 독서

[16~21] 융합(인문+사회) - (가) ‘18세기 북학파의 북학론’ / (나) ‘18세기 후반 청의 사회·경제적 현실’

(가) 지문 해설 : 이 글은 18세기 북학파들 가운데 박제가와 이덕무의 북학론 형성 배경과 견해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박제가는 18세기 청의 현실이 중화가 손상 없이 보존된 것이자 조선의 발전 방향이라고 보고, 청 문물제도의 수용이 가져다주는 이익을 논하며 북학론의 당위성을 설파하였다. 이덕무는 박제가와 마찬가지로 물질적 삶을 중시하는 이용후생에 관심을 보였지만, ‘평등견’이라는 인식 태도를 바탕으로 청과 조선의 현실적 차이뿐만 아니라 양쪽 모두의 가치를 인정하였다. 하지만 이덕무는 중화의 중심이라 여겼던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주제] 박제가와 이덕무의 북학론 형성 배경과 견해 차이

(나) 지문 해설 : 이 글은 경제 발전이 정점에 달했던 18세기 후반 중국의 상황을 제시하면서 당시 청의 번영이 19세기 들어 내외의 위기에 직면해 급속한 하락의 시대를 겪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18세기 후반 중국은 국내 교역이 활발했음은 물론 대외 무역이 발전하여 경제적 번영을 이루었다. 그러나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해 여러 문제가 나타나면서 불법 활동과 반란의 기반이 된 결사 조직이 출현하고 정제된 관료 사회의 부정부패가 심화되었다. 이러한 위기의 씨앗들은 통치자들의 불안으로 이어져 서양과의 교역을 축소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주제] 18세기 후반 정점에 달한 청의 경제적 번영과 사회적 불안 요인

16.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정답 해설 : (가)는 1778년 함께 여행길에 올라 함께 일정을 소화했던 박제가와 이덕무의 여행록을 바탕으로 18세기 중국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제시한 글로, 1문단에서 개인적인 학문 성향과 관점에 따라 주목한 영역이 달라 18세기 북학파들의 북학론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고 언급하고 있다. 2문단에서는 청의 현실을 중화가 손상 없이 보존된 것이자 조선의 발전 방향이라고 보았던 박제가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3문단에서는 청의 현실을 객관적 태도로 기록하고자 하면서 청에 대한 찬반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청과 조선의 현실적 차이뿐만 아니라 양쪽 모두의 가치를 인정하였던 이덕무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가)는 18세기 중국에 대한 북학파 학자들의 견해를 제시하면서 그러한 견해의 형성 배경 및 견해 간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 피하기] ② (가)는 청의 문물제도를 수용하자는 18세기 북학론 중 박제가와 이덕무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을 뿐, 각 관점이 지닌 역사적 의의와 한계를 서로 비교하고 있지는 않다. ③ (나)는 명대 이래의 경제 발전이 정점에 달했던 18세기 후반의 중국의 사회상을 제시하고 있을 뿐, 다양한 사회상을 시대별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서술하고 있지는 않다. ④ (나)는 18세기 후반 중국의 경제 발전 양상을 다루고 있을 뿐, 18세기 중국의 사상적 변화를 제시하거나 그러한 변화가 지니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 ⑤ (가)는 18세기 후반 중국을 다녀온 박제가와 이덕무의 북학론을, (나)는 18세기 후반의 중국의 현실을 제시하고 있을 뿐, (가)와 (나) 모두 중국의 현실이 당시 조선이나 다른 나라에 미친 영향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17. 세부 내용 파악

정답 해설 : (가)의 3문단에서 이덕무는 청 문물의 효용을 도외시하지 않고 박제가와 마찬가지로 물질적 삶을 중시하는 이용후생에 관심을 보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중국인들의 외양이 만주족처럼 변화된 것을 보고 비통한 감정을 토로하며 중화의 중심이라 여겼던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이 중화를 보존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④

[오답 피하기] ① (가)의 2문단에서 박제가는 당시 청의 현실은 중화가 손상 없이 보존된 것이자 조선의 발전 방향이라고 인식하였으며, 당시 조선은 나름의 독자성을 유지하기보다 중화와 합치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청 문물을 수용해야 한다고 보았다고 할 수 있다. ② (가)의 2문단에서 박제가는 자신이

인식한 청의 현실을 단순한 현실이 아니라 조선이 지향할 가치 기준으로 받아들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③ (가)의 3문단에서 이덕무는 잘 정비된 마을의 모습을 기술하며 황제의 행차에 대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조치가 민생과 무관하다고 지적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청의 현실을 관찰하면서도 이면에 있는 민생의 문제를 간과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⑤ (가)의 2문단에서 박제가는 당시 청의 현실을 중화가 손상 없이 보존된 것이라 조선의 발전 방향으로 보았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가)의 3문단에서 이덕무는 중화의 중심이라 여겼던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박제가와 이덕무는 모두 중화 관념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고 할 수 있다.

18. 생략된 내용 추론

정답 해설 : (가)의 3문단에서 이덕무는 ‘평등견’이라 불렀던 인식 태도를 바탕으로 당시 청에 대한 찬반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청과 조선의 현실적 차이뿐만 아니라 양쪽 모두의 가치를 인정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아울러 이런 시각에서 그는 청과 조선은 구분되지만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고 보았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평등견은 청에 대한 배타적 태도를 지양하고 청과 구분되는 조선의 독자성을 유지하자는 인식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정답 ⑤

[오답 피하기] ① (가)의 3문단에서 이덕무는 청 문물의 효용을 도외시하지 않고 물질적 삶을 중시하는 이용후생에 관심을 보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아울러 그는 평등견의 시각에서 청을 배우는 것과 조선 사람이 조선 풍토에 맞게 살아가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평등견을 조선의 풍토를 기준으로 삼아 청의 제도를 개선하자는 인식 태도라고 볼 수 없다. ② (가)의 3문단에서 이덕무는 평등견이라는 인식 태도를 바탕으로 당시 청에 대한 찬반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청과 조선의 현실적 차이뿐만 아니라 양쪽 모두의 가치를 인정하였으며, 청과 조선은 구분되지만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고 보았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므로 평등견을 조선의 고유한 삶의 방식을 청의 방식에 따라 개혁해야 한다는 인식 태도라고 볼 수 없다. ③ (가)의 3문단에서 이덕무는 청을 배우는 것과 조선 사람이 조선 풍토에 맞게 살아가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므로 평등견을 풍토로 인한 청과 조선의 차이를 해소하려는 인식 태도라고 볼 수 없다. ④ (가)의 3문단에서 이덕무는 평등견의 시각에서 청을 배우는 것과 조선 사람이 조선 풍토에 맞게 살아가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고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그가 중국인들의 외양이 만주족처럼 변화된 것을 보고 비통한 감정을 토로하며 중화의 중심이라 여겼던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등 자신이 제시한 인식 태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는 내용을 고려할 때, 중국인의 외양이 변화된 모습을 명에 대한 의리 문제와 관련지어 파악하는 것은 평등견의 인식 태도에서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19. 내용의 인과관계 파악

정답 해설 : (나)의 1문단에서 18세기 후반의 중국은 명대 이래의 경제 발전이 정점에 달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2문단에서는 19세기에 접어들 무렵부터는 청이 심각한 내외의 위기에 직면해 급속한 하락의 시대를 겪게 되었으며 18세기 후반에도 이미 그 위기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 징후들은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한 것으로, 인구 증가로 이주 및 도시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통적인 사회적 유대가 약화되거나 단절되자 사람들이 상호 부조 관계를 맺는 결사 조직이 나타났는데 이런 결사 조직들이 불법적인 활동으로 연결되곤 했고 위기 상황에서는 반란의 조직적 기반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인맥에 기초한 관료 사회의 부정부패가 심화된 것 역시 인구 증가와 무관하지 않은 일로서 ‘위기의 씨앗’이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은 반란의 위험성 증가 등 인구 증가로 인한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여러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답 ③

[오답 피하기] ① (나)의 2문단에서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한 여러 문제는 새로운 작물 재배, 개간, 이주, 농경 집약화 등의 민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았다고 언급하였으므로 ㉠은 새로운 작물의 보급 증가가 경제적 번영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가리킨다고 볼 수 없다. ② (나)의 1문단에서 상인 조직의 발전과 신용 기관의 확대는 교역의 질과 양이 급변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18세기 후반의 중국의 경제 발전이 정점에 달해 있었다고 말한 근거에 해당하므로 ㉠은 신용 기관이 확대되고 교역의 질과 양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을 가리킨다고 볼 수 없다. ④ (나)의 2문단에서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한 여러 문제는 새로운 작물 재배, 개간, 이주, 농경 집약화 등의 민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았다고 언급하였으므로 ㉠은 조정에서 추진한 정책들이 실패한 상황을 가리킨다고 볼 수 없다. ⑤ (나)의 2문단에 따르면 인구 증가로 이주 및 도시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통적인 사회적 유대가 약화되거나 단절되자 사람들이 상호 부조 관계를 맺는 결사 조직이 나타나고, 이런 결사 조직들이 불법적인 활동으로 연결되고, 위기 상황에서는 반란의 조직적 기반이 되었던 것을 ‘위기의 씨앗’으로 볼 수 있다. 인맥에 기초한 관료 사회의 부정부패가 심화된 것은 인구 증가와 무관하지 않은 일이라는 하지만 사회적 유대의 약화로 인해 발생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은 사회적 유대의 약화로 인하여 관료 사회의 부정부패가 심화되는 상황을 가리킨다고 볼 수 없다.

20. 글에 드러난 관점, 내용 비판

정답 해설 : (나)에서 대외 무역의 발전과 은의 유입은 중국의 경제적 번영에 영향을 미친 외부적 요인이었으며, 이를 통해 가능해진 은을 매개로 한 과세는 상품 경제의

발전을 자극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보기>의 ‘은이란 천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 물건이지만, 약은 사람에게 먹여 반나절이면 사라져 버리고 비단은 시신을 감싸서 묻으면 반년 만에 썩어 없어진다.’라는 내용은 중국의 경제적 번영에 기여한 은의 효용성을 높이 평가하면서 은의 효용성을 간과하고 있는 당시 조선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본 박제가의 견해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나)에 제시된 중국의 경제적 번영에 은이 기여한 요소를 고려할 때, <보기>에 제시된 은에 대한 평가는 은의 효용적 측면을 높이 사는 평가라 볼 수 있다.

정답 ④

[오답 피하기] ① (가)의 [A]에서 박제가는 이익 추구를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으로 긍정하고 양반도 이익을 추구하자는 등 실용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보기>의 ‘중국 사람은 가난하면 장사를 한다. 그렇더라도 정말 사람만 현명하면 원래 가진 풍류와 명망은 그대로다.’라는 내용은 [A]에서 제시한 실용적인 입장에 부합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② (가)의 [A]에서 박제가는 청 문물제도의 수용이 가져다주는 이익을 논하며 북학론의 당위성을 설파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보기>의 ‘우리나라에서는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많이 나는 산물을 다른 데서 산출되는 필요한 물건과 교환하여 풍족하게 살려는 백성이 많으나 힘이 미치지 못한다.’라는 내용은 [A]에서 제시한 북학론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라 볼 수 있다. ③ (나)의 1문단에서 18세기 후반의 중국에서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향촌의 정기 시장부터 인구 100만의 대도시의 시장에 이르는 여러 단계의 시장들이 그물처럼 연결되어 국내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보기>의 ‘유생이 거리낌 없이 서점을 출입하고, 재상조차도 직접 융복사 앞 시장에 가서 골동품을 산다.’라는 내용은 상업이 융성하고 관련 활동이 활발했던 중국 국내 교역의 양상과 상충되지 않는다. ⑤ (나)의 2문단에서 인맥에 기초한 관료 사회의 부정부패가 심화된 것이 인구 증가와 무관하지 않으며, 관료 조직의 규모가 정제되고 경쟁이 심화되어 종종 관료들이 불법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보기>의 ‘재상조차도 직접 융복사 앞 시장에 가서 골동품을 산다.’라는 내용은 (나)에서 제시된 바 없는 관료, 지배층의 다른 면모이므로 당시 청의 지배층의 전체 면모가 드러나지 않는 진술이라 볼 수 있다.

21. 단어 사용의 적절성 파악

정답 해설 : ‘한정되다’는 ‘수량이나 범위 따위가 제한되어 정해지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이다. ‘그치다’는 ‘더 이상의 진전이 없이 어떤 상태에 머무르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이므로 문맥상 ㉔는 ‘그치지’로 바꿔 쓸 수 있다.

정답 ③

[오답 피하기] ① ‘보존되다’는 ‘잘 보호되고 간수되어 남겨지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이다. 따라서 ‘드러난’은 문맥상 ㉑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② ‘도외시하다’는 ‘상관하지 아니하거나 무시하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이다. 따라서 ‘생각하지’는 문맥

상 ㉞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④ ‘자극하다’는 ‘외부에서 작용을 주어 감각이나 마음에 반응이 일어나게 하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이다. 따라서 ‘따라갔다’는 문맥상 ㉞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⑤ ‘성행하다’는 ‘매우 성하게 유행하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이다. 따라서 ‘일어났다’는 문맥상 ㉞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22~25] 문학

[22-25] 현대 소설 - 서영은, ‘사막을 건너는 법’

지문 해설 : 이 작품은 베트남전에서 귀환한 ‘나’가 현실에 적응해 가는 과정을 드러낸 이야기로, 삶이 허무하다고 인식하던 주인공의 인식 변화를 그려냄으로써 삶의 허무를 극복하는 인간의 노력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전쟁을 통해 죽음은 별것 아닌 것이고 삶은 무상한 것이라고 느끼게 된 ‘나’는 의욕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노인을 보며 노인에게 삶이 허무하다는 것을 알려주리라 결심한다. ‘나’는 의도적으로 노인에게 접근하여 자신이 뜻한 바를 이루고자 했지만, 오히려 노인이야말로 삶의 허무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스스로 극복하고 있는 인물이었음을 알게 된다. 고달프고 충격적인 삶의 사건들을 견뎌내는 노인의 방법을 뒤늦게나마 알아차린 ‘나’는 삶을 허무하다고 여기고 그것을 타인에게 주입하고자 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된다. 이 작품은 인생이라는 사막을 건너고 있는 ‘나’와 노인의 삶의 방식의 차이를 통해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성찰하게 해 준다.

[주제] 삶에서 느끼는 허무와 이를 극복해 내려는 인간의 노력

22.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해설 : [A]는 ‘나’가 베트남에서 겪은 과거의 일을 나미에게 들려주는 부분의 일부로, ‘말했어’, ‘고장났지’, ‘트더군’, ‘싫더군’, ‘문제였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구어체의 종결 어미를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나’가 경험한 사실을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다. 한편 [B]에는 ‘나’가 노인의 모습을 관찰하는 상황이 드러나 있는데, ‘~ 눈에 잡힌다’, ‘~ 짐을 내린다’, ‘~ 있을 곳에 놓여진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재 시제를 활용하여 ‘나’가 보는 사실을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다.

정답 ②

[오답 피하기] ① [A]는 ‘나’의 회상에 의한 부분이며, [B]는 시간 순서대로 사건이 서술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A]는 ‘나’가 당시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스스로 전달하는 내용이고, [B]는 ‘믿어지지 않는다’와 같이 서술자가 주관적 정서를 담아 서술하고 있으므로 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A]에는 인물들이 차를 타고 이동하는 공간 이동 상황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나, 탑승한 두 인물은 공동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이지 외적 갈등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B]는 노인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고 있을 뿐 공간에 대해 특별히

묘사하고 있지 않으며, 인물들의 외적 갈등 또한 드러나 있지 않다. ④ [A]는 한병장과 ‘나’의 대화를 삽입하고 있지만, 삽입된 대화가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두 사람은 무서움, 결혼 등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있을 뿐이다. [B]는 ‘나’의 눈에 비친 노인의 행동을 제시할 뿐, 갈등 해소 과정을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⑤ [A]에 중심인물인 ‘나’의 말이 제시되고 있긴 하지만, 그 말은 같은 공간에 있는 다른 인물과 각자의 감회나 기대에 관해 나눈 일상적인 대화일 뿐 사건의 인과 관계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한편 [B]에는 주변 인물의 말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3.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 해설 : ‘나’는 전선(베트남)에서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 주변의 모든 사물, 모든 사람으로부터 차단된 느낌을 품은 채, 그것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대한 그 어떤 흥미나 관심도 갖지 못하고 있다. ‘나’는 이렇듯 삶을 권태롭고 짜증스럽게만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중에, 며칠 전 다방에서 나미를 만나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정답 ①

[오답 피하기] ② ‘나’가 D 고지로 향하는 중 음료수가 떨어져서 곤란함을 겪은 것이 아니라, 음료수가 떨어져서 곤란을 겪고 있는 D 고지의 연대원에게 물을 실어다 주는 임무를 수행한 것이다. ③ ‘나’는 적의 정찰 비행에 발견되어 공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엔진이 고장난 상태에서 동이 터 오자 날이 밝으면 적의 정찰 비행에 발견되어 공중 사격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 ④ 결혼 계획을 밝히며 제대 이후의 삶을 언급한 것은 한병장이다. ⑤ ‘그러나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표현을 통해 ‘나’가 전선에서 귀환한 후 자신의 긴장감을 이해해 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4.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정답 해설 : ‘나’는 오늘도 노인이 나타나 그토록 진지한 얼굴로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고 ‘대체로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하지만 공터에 나타난 노인은 어제와 거의 같은 장소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건’을 찾는 행동을 변함없이 계속하여 ‘나’를 놀라게 한다. 그러므로 ‘나’가 ‘노인’이 변화된 모습을 통해 ‘물건’을 찾는 노인의 행위가 중단될 것임을 예감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①

[오답 피하기] ② ‘나’는 ‘물건’의 정체가 무엇이기에 노인이 그토록 열심히 찾고 있는 것인지, ‘물건’의 정체와 노인이 ‘물건’을 찾는 태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고 싶어 한다. ③ ‘나’는 ‘무엇이 노인에게 저토록 소중하게 여겨진단 말인가.’라며, 노인이 ‘물

건'을 가치 있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④ '나'는 자신이 '모든 사물'로부터 차단된 상태라고 느끼는 것과 관련된 자신 안의 긴장에 대해 누군가에게 말하려 애써 보았지만 누구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다. ⑤ '나'는 '모든 사물'로부터 차단되었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는 주변의 모든 사물로부터 소외된 상태라고도 할 수 있다. 노인은 '물건'을 열심히 찾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는 무언가를 상실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25.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해설 : <보기>는 이 작품이 시각을 통해 긴장 상태에서의 극대화된 감각 체험을 보여 주는 한편, 현실에 대한 체념을 드러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나'가 한병장과 함께 차를 타고 가는 상황에서 방향 감각을 잃은 나방이 떼들이 차창에 부딪혀 죽는 것을 목격하는 것은 '나'의 감각이 어둠 속의 모든 사물들에 대해 극도의 미세한 것까지도 정밀하게 느끼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실에 대한 '나'의 체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정답 ④

[오답 피하기] ① '나'는 집에 돌아온 자신이 아직도 집 안의 상황을 '전선'이라고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해 '내 몸에 밴 전쟁 냄새' 때문이라며 후각을 활용하여 말하고 있다.

② '나'는 자신을 둘러싼 일상생활의 다양한 소리에 대해 '밖'은 '무의미하고 태평스럽'다고 느끼고 있는데, 이를 통해 '나'는 전선에서 돌아온 자신이 아직도 타인과 다른 현실 인식을 지니고 있음을 의식하고 있다. ③ 한병장과 한밤중에 차를 타고 이동하는 상황에서 '나'는 헤드라이트의 반경 속 '돌', '벌레' 등이 '심장에 맞닿아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이는 전장의 긴장감 속에서 '나'의 감각이 극대화되어 있는 상황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⑤ '나'는 노인의 행위가 자신의 예상과 달리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당황한다. 이런 당황스러움은 노인과 관련한 '나'의 현실 인식이 빛나간 데에서 비롯되며, '방 안을 오락가락'하는 '나'의 행동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26~30] 독서

[26~30] 사회, '예약의 법적 성질'

지문 해설 : 이 글은 '예약'과 관련한 다양한 법적 성질을 설명하고 있다. 예약은 법적으로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대로 권리가 발생하는 계약의 일종으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급부 내용으로 하는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예약은 권리자가 가지는 법적 성질에 따라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과 예약 완결 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채권의 급부 내용은 예약 권리

자의 본계약 성립 요구에 대해 상대방이 응낙하는 것을 말하며 이후 본계약의 체결에 따라 본계약상의 급부가 발생한다. 후자의 경우 관리자가 본계약 성립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본계약이 성립하여 본계약상의 급부가 발생한다. 예약상의 급부나 본계약상의 급부가 이행되지 않으면 채무자는 고의나 과실이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채무 불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다. 그리고 급부가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 관여되어 있으며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는 제삼자에게도 손해 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예약 상대방이나 방해자인 제삼자 중 누구라도 손해 배상을 하면 다른 한쪽의 배상 의무는 사라지게 된다.

[주제] 예약의 법적 성질과 급부의 미이행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

26. 세부 내용 파악

정답 해설 : 5문단에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 고의나 과실에 의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고 그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불법행위 책임이 계약 당사자 사이에 국한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 피하기] ① 2문단에서 계약이 성립하면 합의 내용대로 권리 발생 등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추가 합의가 없어도 계약상의 채권은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② 1문단에서 급부는 재화나 서비스 제공인 경우가 많지만 그 외의 내용일 수도 있다는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 ③ 3문단에 예약의 두 가지 유형이 제시되어 있다.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의 경우, 예약상 관리자는 본계약 성립 요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예약상 관리자가 본계약의 성립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본계약상 권리는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의 경우에는 예약상 관리자가 본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본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에 예약상 관리자가 본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본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두 가지 유형의 예약 모두 예약상 관리자가 본계약상의 권리의 발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1문단에서 급부를 이행하면 채권에 대응하는 채무는 소멸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7. 중심 내용 파악

정답 해설 : 2문단에서 계약은 권리 발생 등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로, 일상에서의 예약이라고 할 때와 법적인 관점에서의 예약은 구별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기차 탑승을 위해 미리 돈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것’을 예로 들어 이는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예약은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활용된다고 하였다. 따라

서 ㉠은 당사자의 합의로 권리를 발생시키는 계약을 성립시키는 행위로서 다만 기차에 탑승하는 권리의 행사 시점을 미래로 정해 두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 피하기] ① 기차 탑승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이고 기차 탑승 서비스 제공이 급부이다. ② ㉠은 기차 탑승 서비스 제공을 급부로 하는 것이므로 기차를 탑승하지 않는 것은 승차권 구입에 따라 발생한 채권, 즉 상대방에게 특정 행위(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지 채권에 대응하는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④ 승차권을 미리 구입하는 것 자체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발생시키는 계약이므로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어떤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예약이다. 2문단에서 ㉠은 법적인 관점에서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이라고 하였으므로 ㉠에서 미리 돈을 지불하는 것을 탑승 서비스 이용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예약 행위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8. 생략된 내용 추론

정답 해설 :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의 경우 채권의 급부 내용은 예약상 권리자의 본계약 성립 요구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약상 급부는 본계약 성립의 요구에 대해 상대방이 급식 계약을 승낙하는 것(ㄱ)이다. 예약상 급부에 의해 본계약이 체결되면 본계약상 급부가 발생하는데, 이는 급식 제공에 따라 급식 대금을 지급받는 것(ㄷ)이라 할 수 있다.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의 경우 본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본계약이 성립하므로 예약상의 급부는 없다(ㄴ)고 볼 수 있다.

정답 ①

29.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 해설 : 갑의 손해가 을의 고의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을이 증명하지 못했다면 을은 채무 불이행의 책임을 지고 손해 배상의 채무를 지게 된다. 병 역시 갑이 예약해 둔 시간에 고의로 끼어들어 위법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여 손해 배상의 채무를 지게 된다. 을과 병 모두 손해 배상의 채무는 지지만 병은 갑과 급부의 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병이 채무 불이행의 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 피하기] ① 을은 갑에게 약속한 오전 10시에 머리 손질을 해주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있다. 그리고 병은 고의로 끼어들어 위법성이 있는 행위를 했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 채무를 지게 된다. ② 을이 고의가 있었을

경우, 을은 채무 불이행 책임을 저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 그리고 병은 고의로 끼어들어 위법성이 있는 행위를 했으므로 역시 손해 배상의 채무를 진다. 다만 5문단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약상 권리자에게 예약 상대방인 을이나 방해자인 병 중 누구라도 손해 배상을 하면 다른 한쪽의 배상 의무도 사라지므로 을이 배상을 하면 병의 채무는 사라진다. ③ 4문단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을이 갑의 손해가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했을 경우, 을은 채무 불이행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5문단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병도 고의로 끼어들어 위법성이 있는 행위를 했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 채무를 져야 한다. 한편 이런 상황에서 예약 상대방과 방해자 중 한 사람이 손해 배상을 하면 다른 한쪽의 배상 의무는 사라지는데 그 이유는 급부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므로 을과 병의 급부 내용은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⑤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음이 증명된다면 을은 채무 불이행의 책임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나 병은 고의로 끼어들어 위법성이 있는 행위를 했으므로 을과 달리 갑의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할 채무를 진다.

30. 단어의 의미 파악

정답 해설 : ㉑의 ‘받기’와 ㉒의 ‘받았다’는 모두 ‘다른 사람이 주거나 보내오는 물건 따위를 가지다.’의 의미로 쓰였다.

정답 ②

[오답 피하기] ㉑ ㉒의 ‘가진’은 ‘자기 것으로 하다’의 의미로 쓰인 반면, ㉓의 ‘가진’은 ‘생각, 태도, 사상 따위를 마음에 품다.’의 의미로 쓰였다. ㉔ ㉕의 ‘생길’은 ‘어떤 일이 일어나다.’의 의미로 쓰인 반면, ㉖의 ‘생긴’은 ‘없던 것이 새로 있게 되다.’의 의미로 쓰였다. ㉗ ㉘의 ‘물을’은 ‘어떠한 일에 대한 책임을 따지다.’의 의미로 쓰인 반면, ㉙의 ‘물어’는 ‘무엇을 밝히거나 알아내기 위하여 상대방의 대답이나 설명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말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㉚ ㉛의 ‘끼치는’은 ‘영향, 해, 은혜 따위를 당하거나 입게 하다.’의 의미로 쓰인 반면, ㉜의 ‘끼쳤다’는 ‘소름이 한꺼번에 돌아나다.’의 의미로 쓰였다.

[31~33] 문학

[31~33] 고전소설 - 작가 미상, ‘최고운전’

지문 해설 : 이 작품은 최치원의 일생을 허구적으로 형상화한 영웅 소설이다. 신라 말의 역사적 인물로서 뛰어난 글재주를 지니고 범상치 않은 삶을 살았던 최치원을 적당 영웅으로 형상화했으며, 다양한 설화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제시된 부분은 ‘거울을 깨뜨린 죄로 노비가 되었다’는 내용의 파경노 설화를 활용하고 있는 부분으로, 최치원의 비범성과 기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31. 시점 및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 해설 : 신라 왕이 나엽에게 석함 안의 물건을 알아내 시를 지어 올리라는 명을 내린 뒤 나엽은 이를 해결하지 못해 근심하였다. 상황을 알게 된 파경노는 소저를 찾아가 자신이 소저의 근심을 없애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얼마 뒤 소저는 나엽에게 파경노의 재주에 대해 이야기하고 파경노가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파경노와 소저의 대화, 나엽과 소저의 대화를 통해 나엽이 근심하고 있는 문제, 즉 신라 왕이 나엽에게 시를 지어 올리라고 명령한 사건의 해결 방안이 제시된 것이다.

정답 ④

[오답 피하기] ① 사건이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시간의 역전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② 서술자가 개입하여 사건의 전모에 대해 밝히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인물을 희화화하여 의도적으로 우스꽝스럽게 묘사한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⑤ 현실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으며, 꿈과 현실이 교차되고 있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32.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 해설 : 아이는 소저에게 반해 거울을 일부러 깨뜨리고, 거울 값을 갚겠다고 하며 승상 나엽의 집의 노비가 되기를 자처하였다. 이에 승상은 아이에게 파경노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따라서 깨뜨린 ‘거울’은 아이가 파경노라는 이름을 얻고 승상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파경노가 관리한 동산의 ‘화초’는 파경노와 소저가 시로써 교감하는 계기가 된다. 승상 부인은 파경노가 돌보는 말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파경노의 비범성을 알아차렸으므로 동산의 화초가 승상 부인으로부터 파경노가 인정받는 계기로 작용한 것은 아니다.

정답 ②

[오답 피하기] ① 아이는 소저의 재예가 빼어나다는 말을 듣고 자신을 거울 고치는 장사라고 속여 소저의 집에 찾아갔다. 소저는 유모에게 ‘거울’을 주고 문틈으로 밖을 엿보았는데, 이때 아이는 소저의 얼굴을 보게 되었으므로 이 거울이 아이가 소저의 얼굴을 보게 되는 계기를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나엽의 일로 슬피 울던 소저가 벽에 걸린 ‘거울’을 보고 창밖에 파경노가 꽃을 들고 서 있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 거울이 파경노가 소저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계기를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소저는 동산의 ‘꽃’을 보고 싶었지만 파경노가 꽃을 키우므로 부끄러워 오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동산의 꽃은 소저가 보고 싶었으나 파경노로 인해 접근하기 어렵게 된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파경노는 소저의 창밖에서 ‘꽃’을 들고 서서 이 꽃이 소저를 위한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이 꽃은 소저에 대한 파경노의 마

음을 전달해 주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소저가 동산에 들어와 꽃을 보고 시를 짓자 파경노가 ‘시’로써 화답하였다. 화답한 시는 파경노가 소저와 교감하기 위해 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소저는 석함 속 물건에 대한 ‘시’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나업에게 파경노의 재주에 대해 말하며 파경노를 불러 시를 짓게 하라고 하였다. 이는 소저가 석함 속 물건에 대한 시를 파경노가 지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신라 왕이 나업에게 석함 안에 물건을 알아내 ‘시’를 지어 올리라는 명을 내린 뒤 나업은 이를 해결하지 못해 통곡하였으므로, 석함 속 물건에 대한 시는 나업에게 슬픔을 유발하는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파경노는 나업의 일로 울고 있는 소저에게 ‘거울 속에 비친 이가 반드시 그대 근심을 없애 줄 것이오.’라고 말하였는데, 이로 보아 석함 속 물건에 대한 ‘시’가 파경노에게는 소저의 슬픔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33.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정답 해설 : 시를 지으면 후한 상을 줄 것이라고 한 나업의 제안에 대해 파경노는 거짓으로 못하는 체하며 시 짓기를 거절하였다. 이는 파경노가 진심으로 시를 짓지 않고자 한 것이 아니라 소저를 얻기 위해 기지를 발휘한 것으로, 보상을 추구하지 않고 국가의 과제를 해결하려고 하였기 때문은 아니다.

정답 ⑤

[오답 피하기] ① 아이는 나업의 딸인 소저의 재예에 대한 말을 듣고 자신을 거울 고치는 장사라고 속이고 승상의 집에 찾아갔다. 이때 아이가 헌옷으로 바꾸어 입은 것은 자신의 속임수가 들통나지 않도록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다. ② 천상의 선관들이 물려와 말 먹일 꼴을 다투어 파경노에게 가져다주는 것은 파경노가 천상계의 도움을 받고 있는 존재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③ 파경노가 화초를 기른 뒤 화초가 무성하고 조금도 시들지 않으며 상서로운 새인 봉황까지 날아들었다는 것은 파경노가 신이하고 비범한 능력을 지닌 인물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④ 파경노는 소저가 동산의 꽃을 보고 싶어 하나 부끄러움을 느껴 오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승상에게 노모를 뵈고 오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귀향하지 않고 동산에서 소저와의 만남을 기다렸다. 즉 파경노가 노모를 핑계 삼아 말미를 얻은 것은 소저와의 만남을 위해 기지를 발휘한 것이다.

[34~37] 독서

[34~37] 기술, ‘3D 합성 영상의 생성, 출력을 위한 모델링과 렌더링’

지문 해설 : 이 글은 3D 합성 영상을 생성하고 출력하기 위한 모델링과 렌더링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모델링’은 3차원 가상 공간에서 물체의 모양과 크기, 공간적인 위

치, 표면 특성 등과 관련된 고유의 값을 설정하거나 수정하는 단계이며, '렌더링'은 모델링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활용해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2차원의 화면을 생성하는 단계이다. 모델링과 렌더링을 거치면 프레임이 생성되며, 이러한 과정을 반복해 생성된 프레임을 순서대로 표시하면 동영상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생기는 데이터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중앙처리장치(CPU)의 그래픽 처리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그래픽처리장치(GPU)가 활용된다.

[주제] 3D 합성 영상의 생성, 출력을 위한 모델링과 렌더링의 방법

34. 세부 내용 파악

정답 해설 : 모델링 단계를 설명한 2문단의 마지막 문장에서 물체 표면을 구성하는 각 삼각형 면에는 고유의 색과 질감 등을 나타내는 표면 특성이 하나씩 지정된다고 하였다. 즉 물체 고유의 표면 특성은 렌더링 과정이 아닌 모델링 단계에서 지정된다. 렌더링 단계에서는 공간에서의 입체에 대한 정보인 모델링 단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화면을 생성하며 각 화소별로 화소값을 부여하여 밝기나 색상을 나타낸다고 3문단에서 언급하고 있다.

정답 ②

[오답 피하기] ① 1문단에서 3D 합성 영상을 생성, 출력하려면 자연 영상과 달리 모델링과 렌더링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③ 3문단의 내용을 통해 물체의 입체감과 원근감은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2차원의 화면을 생성하는 렌더링 과정을 통해 구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4문단에서 해상도가 높아 출력 화소의 수가 많을수록 연산 양이 많아져 연산 시간이 길어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⑤ 4문단에서 과도한 양의 데이터가 집중되어 미처 연산되지 못한 데이터가 차례를 기다리는 것을 병목 현상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35. 중심 내용 파악

정답 해설 : 2문단에서 모델링은 작은 삼각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그물과 같은 형태로 물체 표면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복잡한 굴곡이 있는 표면도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정답 ②

[오답 피하기] ① 2문단에 따르면 모델링은 3차원 가상 공간에서 물체의 모양과 크기, 공간적 위치, 표면 특성 등과 관련된 고유의 값을 설정하거나 수정하는 단계이다. 그러므로 물체와 관련한 모든 삼각형 정점들의 위치를 계산하게 된다. 다른 물체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특정한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이는 렌더링 과정에서 고려되는 요소이다. ③ 2문단에서 물체 표면을 구성하는 각 삼각형 면에는 고유의 색과 질감 등을 나타내는 표면 특성이 하나씩 지정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④,

⑤ 2, 3문단의 내용을 통해 모델링은 3차원 가상 공간에서 고유의 값을 설정하거나 수정하는 단계이고, 렌더링은 물체를 어디에서 바라보는가를 나타내는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2차원의 화면을 생성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36. 생략된 내용 추론

정답 해설 : 다수의 코어가 작동하더라도 데이터의 연산을 하나씩 순서대로 처리해야 한다면, 이전 코어의 연산 이후에 다른 코어에서 다음 연산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의 총 연산 시간은 단일 코어에서 데이터 연산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때 걸리는 총 연산 시간과 같다.

정답 ④

[오답 피하기] ①, ② 4문단에서 GPU는 동일한 연산을 여러 번 수행할 경우, 한 번의 연산에 쓰이는 데이터들을 순차적으로 각 코어에 전송한 후 전체 코어에 하나의 연산 명령어를 전달해 각 코어가 모든 데이터를 동시에 연산하도록 하기 때문에 연산 시간이 짧아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③ 4문단에서 GPU의 각 코어는 그래픽 연산에 특화된 연산만을 할 수 있고 CPU의 코어에 비해 저속으로 연산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GPU와 CPU가 각각 1개의 코어에서 1개의 동일한 연산을 할 경우, CPU의 연산 시간이 더 짧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4문단에 따르면 GPU의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빠른 것은 한 번의 연산에 쓰이는 데이터들을 순차적으로 각 코어에 전송한 후, 동시에 모든 데이터를 연산하기 때문이다. GPU는 한 번의 연산에 쓰이는 데이터들을 순차적으로 각 코어에 전송한다고 하였으므로 10개의 데이터를 10개의 코어에 전송하는 시간은 1개의 데이터를 1개의 코어에 전송하는 시간보다 길다.

37. 구체적인 사례 적용

정답 해설 : 장면 3은 풍선과 ‘네모’가 함께 하늘로 날아올라 특정한 관찰 시점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서 작게 보이는 장면을 구상한 것이다. 3문단에 따르면 이러한 원근감은 모델링이 아닌 렌더링 단계에서 구현되는 것이다. 2문단에 따르면 모델링 단계에서는 물체의 모양과 크기, 공간적인 위치, 표면 특성 등과 관련된 고유의 값을 설정하거나 수정하는데, 장면 3은 풍선이 그 자체의 크기에 변화 없이 ‘모양을 유지한 채’ 하늘로 날아올라 가는 장면이므로, 모델링 단계에서 풍선에 있는 정점들이 이루는 삼각형들이 작아질 것이라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 피하기] ① 3문단의 내용을 통해 렌더링은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2차원의 화면을 생성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장면 1에서 관찰 시점상 풍선에 가려 보이지 않는 입 부분의 삼각형은 2차원의 화면에 생성되지 않는 부분이므로 해당 부분의 표면 특성이 화소값을 구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 ② 2문단에서 모

텔링 단계에서의 정점의 개수는 물체가 변형되어도 변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장면 2가 풍선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장면이라고 해도 풍선에 있는 정점의 개수는 유지됨을 알 수 있다. ③ 2문단에서 모델링에서는 물체가 커지거나 작아지면 정점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거나 좁아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장면 2에서는 풍선이 점점 커지고 있으므로 정점 사이의 간격이 넓어질 것임을 알 수 있다. ⑤ 3문단에서 화소는 전체 화면을 잘게 나눈 점으로, 정해진 개수의 화소로 화면을 표시하고 각 화소별로 밝기나 색상 등을 나타내는 화숫값이 부여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렌더링 단계에서 장면 3이 나타난 전체 화면의 화소 개수 자체에는 변화가 없으며, 장면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일부 화소의 화숫값만 변화할 것임을 알 수 있다.

[38~42] 문학

[38~42] 복합세트 - (가) 정철, ‘사미인곡’ / (나) 신희, ‘창 밖기’ / 유본학, ‘옛집 정승초당을 둘러보고 쓰다’

(가) 지문 해설 : 이 작품은 정철이 고향 창평에 은거하고 있을 때 지은 가사로, 여성 화자가 이별한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빗대어 임금을 향한 자신의 충절과 연군의 정을 고백한 작품이다. ‘서사-본사-결사’의 3단 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본사는 다시 ‘봄-여름-가을-겨울’의 계절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 서사에서는 광한전에서 임과 함께 지내던 화자가 하계로 내려온 상황을 그려 임금과 떨어져 있는 자신의 상황을 드러낸다. 본사에서는 봄의 매화를 보며 임에게 보내고 싶은 마음을, 긴 여름날 임에게 보낼 옷을 짓는 정성스러운 마음을, 가을 맑은 달을 보며 임에게 청광을 보내고 싶은 마음을, 추운 겨울날 임을 염려하며 따뜻한 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을 그리고 있다. 결사에서는 차라리 죽어서라도 임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면서 임에 대한 변함없는 연정을 보여 주고 있다. ‘정과정’을 잇는 충신연주지사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주제]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그리움, 연군지정

(나) 지문 해설 : 이 작품은 임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임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화자의 마음을 음성상징어와 ‘착각-진실’의 구조를 통해 효과적으로 드러낸 시조이다. 창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임이 오신 소리로 착각하여 살펴보지만, 낙엽 지는 소리임을 깨닫고 애달파하는 화자의 마음이 나타나 있다.

[주제]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다) 지문 해설 : 이 작품은 예전에 살던 집의 당호를 소재로, ‘고요함’에 대한 생각을 피력하면서 마음의 고요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자세를 드러내는 글이다. 소란스러움과 더위라는 외적인 번잡함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당시의 태도를 떠올리면서 필자

는 옛집에서 지냈던 뜻을 잊지 않고 되새기고자 하고 있다.

[주제] 마음의 고요함을 추구하는 삶

38. 시어, 시구의 의미 파악

정답 해설 : (가)에서 화자는 베개 머리맡을 비추는 달을 보며 임을 떠올리고 있다. 임과 동일시되는 대상인 달을 보며 ‘님이신가 아니신가’라고 독백하는 것을 통해 홀로 지내는 긴 시간 동안 화자가 임을 간절히 그리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에서 화자는 창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님이신가’ 착각하고 일어나 살피고 있다. 낙엽 날리는 작은 소리에도 혹시 임일까 여기는 간절한 마음을 독백적 어조를 통해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가), (나)의 ‘님이신가’라는 어구는 임이 부재한 상황에서 임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을 독백적 어조로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 피하기] ① (가)의 ‘노여’는 ‘전혀’의 의미로, 임에 대한 자신의 마음과 사랑을 비교할 대상이 전혀 없음을 말하고 있다. 즉, 임에 대한 자신의 마음은 어디에 비할 바 없는 절대적인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나)의 ‘다’는 임을 기다리는 간절함으로 인해 간장이 ‘모두’ 끊어질 것 같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의 ‘노여’와 (나)의 ‘다’가 임에 대한 원망의 정서를 강조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가)의 ‘흐느고 야’는 세월의 흐름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나)의 ‘흐노라’는 임에 대한 화자의 간절한 기다림을 드러내고자 사용되었다. 이들을 화자의 의지를 단정적인 종결형으로 나타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가)의 ‘미화’는 화자가 임에게 보내고 싶은 것으로, 자신의 변치 않는 마음을 상징하는 소재이다. ‘님이 너를 보고’를 통해 화자와 동일시되는 자연물을 의인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나)에서 ‘혜란’이 의인화된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④ (가)의 ‘므스 일고’는 아직 차가운 날씨임에도 피어난 매화에 대한 감동을 드러내고 있지만, (나)의 ‘므스 일고’는 자신의 기대와는 다른 상황에 대한 낙담을 드러낸 것이므로 반가움을 영탄적 어조로 표현한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39.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해설 : ‘염냥’이 ‘가는 듯 고터’ 온다는 인식은 유한한 인생에서 임과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지속되고 있으며 그 시간의 흐름이 속절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언제 임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임과 단절된 채 흐르는 지상의 물리적 시간이 유한한 화자의 인생에 비해 빨리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상의 물리적 시간이 심리적으로 지연되어 나타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 피하기] ① <보기>에 따르면 천상의 시간적 질서에서는 끝없는 사랑이 지속되므로, 임과의 ‘연분’을 ‘하늘’과 연결 짓는 것은 임과의 사랑이 끝없이 이어지기는 바

라는 마음이 반영된 것이라는 내용은 적절하다. ② '점어 잇고'라는 시구는 화자가 '광한전'에서 임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과거의 한때, 즉 '천상의 시간'에 해당하는 것이다. 반면 '늑거야'라는 시구는 화자가 임과 헤어져 '하계'에서 외로이 지내고 있는 현재, 즉 '지상의 시간'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점어 잇고'와 '늑거야'를 통해 화자가 천상의 시간에서 벗어나 지상의 시간으로 편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③ <보기>를 통해 화자가 지상의 물리적 시간을 심리적으로 변형하여 자신의 심경을 드러냄을 알 수 있다. 화자가 임과 함께 광한전에서 지내던 때를 '옛그제'로 표현한 것은 임과 함께한 기억이 너무도 선명히 남아 있어 '삼 년'이라는 지상의 물리적인 시간을 심리적으로 압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보기>를 통해 천상의 시간적 질서와는 다른 지상의 시간적 질서가 화자를 힘겹게 함을 알 수 있다. '인생은 유한'과 '무심한 세월'은 유한한 지상의 시간적 질서에 따른 화자의 불안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0.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해설 : (다)에서 '누군가'가 '고요함이 이긴다'는 당호를 '굳더더기'로 본다는 것은 필자가 집을 지으려는 곳이 소리나 움직임이 없이 잠잠한 외적 고요의 공간인 '임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적 고요만으로는 삶에서 느끼는 불편이나 슬픔을 이겨 내기 어렵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 피하기] ① 외부의 낙엽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화자가 소리나 움직임이 없이 잠잠한 상태, 즉 외적 고요의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② 낙엽 소리를 임이 오는 소리로 착각했다는 것은 화자가 간절하게 임을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마음이 평온한 상태에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③ <보기>에 따르면 (다)의 필자는 내적 고요를 추구함으로써 삶에서 느끼는 슬픔을 이겨 내는 동력을 얻고 있다. (다)에서 '사물에 닿을 때마다 슬픔만 더'한다는 것은 옛집을 돌아본 경험으로 인해 필자가 내적 고요를 이루기 어려움을 드러내는 것이다. ④ '임원'이라는 공간 자체가 외적 고요를 드러내는데, 필자는 이에 당호를 더함으로써 내적 고요까지 추구하려 하고 있다.

41. 작품 간 비교 감상

정답 해설 : (가)의 화자는 광한전에서 홀로 하계로 내려와, 함께 지내던 임을 그리워하고 있다. (다)의 필자는 형제들과 함께 선친을 모시고 학문과 예술을 담론했던 때를 떠올리고 있다. 따라서 (가)와 (다) 모두 자신이 있는 공간에서 그 공간에 부재하는 대상을 떠올리는 상황이 나타나 있다고 이해한 것은 적절하다.

정답 ③

[오답 피하기] ① (가)의 '올 저기 비슨 머리 헛뜰언 디'에 외양 변화에 대한 안타까움

이 나타난다. ② (가)와 (다) 모두에서 새로운 것을 중시하는 태도를 찾을 수 없다. ④ (가)에서 인생의 유한함이 언급되기는 하나 인생의 허무함에 대한 순응적 태도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또한 (다)에서 인간사의 변화와 그로 인한 슬픔이 드러나기는 하나 인생의 허무함에 대한 극복 의지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⑤ (다)의 필자는 장흥방 길갯집에 살던 때의 마음가짐을 떠올리며 그 뜻을 잊지 않으려 하고 있다.

42. 작품의 맥락 이해

정답 해설 : (다)의 필자는 ‘그렇지만 인간사가 벌써 바뀌어, 사물에 닿을 때마다 슬픔만 더하므로 이 집에 다시 살고 싶지는 않다. 마땅히 임원에 집터를 보아 집을 지어서 옛 이름의 편액을 걸어 옛집에서 지냈던 뜻을 잊지 않으려 한다.’라고 하고 있다. 옛집에서 다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지냈던 뜻을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답 ③

[오답 피하기] ① ‘초당이 동쪽으로 치우쳐 햇볕을 받았기에 여름이면 너무 더웠다. 그래서 ‘고요함이 더위를 이긴다[靜勝熱]’라는 말을 당호로 정해 문설주에 편액을 해 걸어 두고 위안을 삼았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② ‘내가 여기에 살던 시절은 집안이 번성하던 때였다. 선친께서 승명전에 봉직하실 때라, 퇴근하신 밤이면 우리 형제들이 모시고 앉아 학문과 예술을 담론하고 옛일을 기록하거나, 시를 읽거나 거문고를 들었으니 유종영의 옛일과 비슷하였다. 그 즐거움을 잊을 수는 없건마는 다시 되찾을 수는 없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④ ‘그새 주인이 바뀐 지 여러 번이지만 집은 옛 모습 그대로였다.’에서 옛집의 외양이 변함없음을, ‘그렇지만 인간사가 벌써 바뀌어, 사물에 닿을 때마다 슬픔만 더하므로 이 집에 다시 살고 싶지는 않다. 마땅히 임원에 집터를 보아 집을 지어서’에서 변해 버린 인간사로 인해 새집을 지으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⑤ ‘집 역시 그릇과 같이 무언가를 담는 부류이긴 하나, 사람은 집이 아니면 몸을 붙여 머물 데가 없고 집보다 더 거처를 많이 하는 것은 없으므로, 집은 그릇보다는 사람에 가깝다 하겠다. 그러니 어찌 그리워하지 않을 수 있으랴!’를 통해 알 수 있다.

[43~45] 문학

[43-45] 현대시 - (가) 이용악, ‘그리움’ / (나) 이시영, ‘마음의 고향2 - 그 언덕’

(가) 지문 해설 : 이 작품은 시인이 광복 직후에 서울로 혼자 상경하여 외롭게 생활하면서, 고향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시이다. 1연과 5연의 수미상관 기법을 통해 눈 내리는 북쪽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고, ‘잉크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을 통해 고향을 떠나와 있는 화자의 외로운 생활을 잘 표현하고 있다.

[주제] 북쪽 고향(가족)에 대한 그리움

(나) 지문 해설 : 이 작품은 화자가 객지로 떠나와서도 결코 잊히지 않는 유년 시절 고향에서의 추억을 ‘그곳(고향, 그 언덕)’을 떠올리며 추억하고 있는 시이다. 유년의 화자의 추억 속의 ‘그곳’은 밭의 가장 자리에 탕자 울타리가 쳐진 곳이며, 중학생이 되어 아침마다 지나다녔던 곳이고, 아래로 흐르는 냇물의 침식을 받아 황토가 드러난 곳이기도 하다. 이 시에서는 화자가 잊지 못하는 고향 마을의 평화롭고 생명력 넘치는 모습과 추억들을 다양한 의성어나 의태어를 활용하여 선명하게 전달하면서 화자의 내면에 존재하는 고향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표현하고 있다.

[주제] 마음에서 잊히지 않는 어린 시절 고향의 추억

43.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 해설 : 4연에서 ‘잉크병 얼어드는’ 방에서 화자는 ‘잠을’ 깬 자신에게 ‘어찌자고 잠을 깨어’라고 자책하는 듯 의문을 던지고 있다. ‘어찌자고 잠을 깨어’ 뒤에 이어지는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을 통해 쓸쓸한 현실 속에서 ‘너를 남기고 온 고향’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절절하고 애달픈 심정을 짐작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 피하기] ① 1연에서 1행의 ‘(눈이) 오는가’는 2행에서 ‘쏟아져 내리는가’로 변주되고 있다. 눈을 매개로 북쪽의 고향을 떠올리고 있으므로 대상에 대한 화자의 거부감을 드러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2연에서 ‘돌아간’은 철길의 휘어진 모양을 나타내고 ‘(철길 위를) 달리는’은 화물차의 움직임을 나타낸다. 더구나 화물차는 ‘느릿느릿 밤새워 달리’고 있다. 따라서 ‘돌아간’과 ‘달리는’의 대응을 활용하여 두 대상 간에 긴장감이 조성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2연에서는 ‘철길’에서 ‘화물차의 검은 지붕’으로 묘사의 초점 이동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휘어진 모양이 묘사된 ‘철길’과 달리, ‘화물차의 검은 지붕’은 그 철길 위를 운행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묘사의 초점 이동이 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4연에서는 ‘잉크병’이라는 사물이 ‘얼어드는’ 현상을 활용하여 고향을 떠나와 있는 화자 자신의 외로운 생활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잉크병’이 ‘얼어드는’ 현상을 활용해 화자가 처한 현실의 변화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4. 이미지의 특징과 효과 이해

정답 해설 : ㉠은 유년의 화자가 언덕 아래 냇가에서 들은 어떤 소리와 관련된 표현이다. 화자는 그 소리가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인 것도 같았고, ‘좌르르 좌르르 무엇이 물살을 헤집는 소리’ 같기도 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즉 이 시에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였는지는 정확히 드러나 있지 않다. 따라서 ㉠을 활용하여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물소리’로 느낀 경험을 부각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 피하기] ① ‘팡팡’은 수수알이 ‘여무는’ 것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수수알 (곡식)이 ‘여무는’ 것을 ‘팡팡’을 활용해 표현함으로써 유년의 화자 자신이 경험한 가을이 단단한 결실을 맺는 시간이었음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③ ‘청청히’는 ‘아주 맑게’의 뜻으로 ‘푸르던’을 수식하고 있다. ‘아,’라는 감탄사를 사용하고, 또 ‘푸르던’ 앞에 ‘청청히’라는 표현을 한 번 더 사용한 것은 유년의 화자 자신이 감동을 느낀 하늘의 푸른 색채를 더욱 강렬하게 표현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④ ‘까르르’는 ‘주로 여자나 아이들이 한꺼번에 자지러지게 웃는 소리. 또는 그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무심증을 느껴 냇가에서 언덕으로 올라온 유년의 화자의 상황과 대비해 볼 때 ‘까르르 까르르’는 이웃들의 웃음소리를 더욱 밝게 느끼게 하는 표현이다. ⑤ ‘또랑또랑’은 ‘조금도 흐리지 않고 아주 밝고 톡톡한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가을 들’이 익어가는 냄새를 ‘또랑또랑’을 활용해 감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가을 들녘의 인상을 선명하게 느낀 경험을 잘 드러내고 있다.

45.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의 감상

정답 해설 : (가)에서 ‘눈’을 ‘복된’ 것으로 표현한 것은 <보기>에서 설명한 이용악의 시에서 나타나는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근원적 공간’으로서의 고향과 관련하여 화자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애정을 드러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에서 화자는 ‘무엇’이 ‘부르는 것 같’았던 언덕을 회상하고 있다. 이는 <보기>에서 설명한 이시영 시의 ‘지금은 상실했지만 기억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공간’으로서의 고향과 관련하여 화가가 어린 시절 고향에서의 추억을 애정 어린 목소리로 노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고향으로의 귀환에 대한 기대를 드러낸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 피하기] ① (가)에 그려진 고향은 ‘복된 눈’이 내리는 북쪽의 ‘작은 마을’이다. 따라서 ‘함박눈’으로 연상되는 겨울의 이미지를 통해 ‘북쪽’ 국경 지역의 고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에서 ‘햇빛’을 받은 ‘깨꽃’은 <보기>에서 말한 ‘생명이 살아 숨 쉬는 평화로운 농촌’의 모습에 해당하므로 ‘햇빛’을 받은 ‘깨꽃’에서 그려지는 여름의 이미지를 통해 생명력 넘치는 고향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② (가)의 고향은 ‘험한 벼랑’에 놓인 철길이 아니면 왕래하기 쉽지 않은 교통의 오지이다. 또한 화자가 그리는 ‘작은 마을’은 ‘연달린 산과 산 사이’에 있는 산촌 마을이다. 이는 <보기>에서 설명한 ‘가족이 기다리는 궁벽한 산촌’의 모습을 구체화한 것에 해당한다. (나)에서 ‘소고삐’를 풀어놓고 ‘가재를 쫓’는 모습은 어린 시절 화자가 고향 마을에서 지냈을 때의 평화로움을 잘 보여 주는 것으로 <보기>에서 설명한 ‘평화로운 농촌’의 모습을 구체화 것에 해당한다. ③ (가)에서 화자는 ‘남기고’ 온 ‘너’를 떠올리고 있다. 따라서 ‘너’가 있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은 고향에서 함께 있다 두고 온 사

람을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에서는 ‘밭 사이’에서 웃던 이웃들의 이름을 나열함으로써 고향에서 함께했던 이웃들에 대한 기억이 생생함을 보여주고 있다. ⑤ (가)에서는 ‘차마 그리운 곳’이라는 표현을 통해 고향에 대한 지극한 그리움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이를 통해 <보기>에서 설명한 근원적 공간인 고향에 대한 애뜻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는 ‘자꾸 안 잊히는지’라는 표현을 통해 떠난 고향, 그러나 마음속에 늘 살아 있는 고향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